

이재명 “절체절명 국운에 선도자 될 것”

21대 대선 출마 비전 제시
“K-민주주의·K-컬처 콘텐츠 등 소프트파워 강국
무너진 민생 등 국난 극복 위해 정권교체 실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1일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대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21대 대선출마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K-민주주의와 K-컬처 콘텐츠, K-과학기술과 K-브랜드까지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강국,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라면서 “대통령의 내란마져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임을 증명할지, 파괴와 퇴행의 역주행을 계속할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하고,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열어야 한다”며 정권교체를 주장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선 “(이제는)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 중심 사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하고,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를 고심하며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중심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며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했던 이유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2기 체제로 ‘자국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며 “우리만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서는 모두 사소한 일일 뿐이다. 막사니즘의 토대 위에 한계를 뛰어넘어 신세계를 설계하는 ‘잘사니즘’, 변화 적응을 넘어 그 변화를 주도하는 영향력이 곧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이 새 희망의 미래를 여는 레벨업(Level-up)의 전기로 만들겠다”며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척하겠다. 이것이 바로 ‘K-이니셔티브’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K-이니셔티브” 새 시대 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1일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대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사진=전북타임스>

했다.

그는 “물가는 치솟고, 실업과 폐업이 늘고, 소득은 줄고, 주가는 폭락, 전국 곳곳 어딜 가나 못 살겠다는 신음이 넘쳐난다”며 “우리 사회 모든 것을 지탱하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또한 “피땀으로 만들고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았다”며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고 거듭 윤석열 정부를 거듭 비판했다.

이 전대표는 “최대 국난이라던 IMF 위기조차 지혜롭고 용기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경제개혁의 기회였다”며 “북지국가의 초석을 다졌고 IT강국의 기틀을 만들었고, 촛불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까지, 세계사에 남을 아름다운 평화혁명으로 K-민주주의는 세계적 모범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전대표는 “‘산대들은 문화강국의 꿈을 키웠고, ‘K-콘텐츠 전성시대’의 산파가 되었다”며 “지금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뭉쳐 있다. 새 길을 내기 위해 익숙한 옛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대표는 “산대들은 문화강국의 꿈을 키웠고, ‘K-콘텐츠 전성시대’의 산파가 되었다”며 “지금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뭉쳐 있다. 새 길을 내기 위해 익숙한 옛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대광법 즉시 공포” 전주시의회 건의안 채택

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정부에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 촉구와 함께 전주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형배(효자5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인구 64만명의 전주시는 현행 법령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주는 2036년 올림픽 유치에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대광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해 전주와 전북의 균형발전과 교통인프라 개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광법 일부개정안 즉시 공포, 개정된 대광법을 통한 정부의 전주권역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건의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제품 개발·실증과정 시험 탄소소재 테스트베드 본격 가동

완결형 밸류체인 구축
신규 장비 19종 도입
기업 장비 사용료 지원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국내 탄소소재 기업들의 제품개발 및 실증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시험,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능능시험장)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전주시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준공된 전북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전용공간에 대한 장비 시험 운영을 마치고 본격 시험 가동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는 항공과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등 탄소소재가 적용되는 핵심 수요 산업과 연계한 기술 사업화 및 수요 창출을 위한 것으로, 지난 3년에 걸쳐 총 19종의 신규 장비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캠퍼스종합기술원 내에 구축됐다.

테스트베드는 연면적 4707㎡, 지상 2층 규모의 전용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수소저장용기 △개인용 비행체(PAV, UAM) △연료전지 △풍력블레이드 등 타깃 품목에 대한 시험분석과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신뢰성 평가 등이 유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탄소소재부터 중간재, 부품, 완제품에 이르는 완결형 밸류체인을 구현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에 구축된 장비를 비롯한 탄소소재 관련 장비 이용을 희망할 경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탄소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국내 탄소소재 기업들의 제품개발 및 실증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시험,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사진=전주시>

산업 공동활용 플랫폼 ‘카보넷’(www.carbonet.or.kr)을 통해 사용 가능 장비 목록과 기술 요소별 적합한 장비 정보 확인 및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장비 사용료의 40%를, 중견기업은 30%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사업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탄소소재 모빌리티·에너지·환경 분야 적용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28억 원 등 총 158억 원이 투입돼 추진됐다.

최근 장비 시험 운영 기간 기업 수요가 높았던 △수소탱크용 라이너 제조시스템 △열가소성 오가노시트 컨솔리데이션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테스트가 진행됐으며, 시는 향후 테스트베드 내 구축된 장비를 활용해 탄소소재 중간재 및 시제품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고 제품의 정밀성과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시험 운영 기간 ㈜더원(전북

완주군 소재)은 수소탱크용 라이너 제조시스템 장비를 활용해 승용차용 수소탱크 라이너의 공정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험을 진행했으며, ㈜넬솔루션(대구광역시 소재)은 열가소성 오가노시트 컨솔리데이션시스템을 이용해 기능성 아웃도어 의류용 합성소재 개발을 위한 테스트를 수행하기도 했다.

㈜넬솔루션 대표는 “테스트베드의 장비가 국내 최고 수준의 정밀성과 신뢰도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전주까지 방문해 시험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소재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테스트베드 구축을 계기로 국내 탄소소재 기업들이 제품 개발 및 실증 과정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상용화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옥수수가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삼양은
삶 곳곳에 숨어있는
가능성으로부터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생활의 잠재력을 깨웁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꿉니다

SAMYANG

전북자치도, 美 바이오 협력거점 구축

보스턴·미네아폴리스 방문 실무 협의·전략적 업무협약

전북자치도가 지난해 국내외 우수 연구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최대 바이오 시장인 미국으로 외연을 확장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보스턴과 미네아폴리스를 방문해 바이오 글로벌 협력거점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출장에는 전북도,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 도내 바이오 기업 등이 함께했다.

바이오 글로벌 협력거점 협약 핵심은,

미국 보스턴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에 전북 협력거점을 마련하고, 제미한인제약인협회(KASBP),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와 함께 도내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CIC는 글로벌 혁신창업 허브로, 전북 바이오기업의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확장, 투자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점이다.

방문단은 하버드 의과대학 소속 메사추세츠 종합병원(MGH)을 방문해 최첨단 바이오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브리검여성병원(BWH) 산하 연구소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줄

기세포, 인공장기, 조직공학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미네아폴리스 일정에서는 미네소타대학교 의료센터를 시찰한 후,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평가받는 메이요클리닉을 방문해 로체스터 캠퍼스의 신경공학 및 정밀수술 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메이요클리닉 측은 전북자치도와 ㈜CBH가 공동 추진 중인 '탄소복합재 기반 뇌정위 고정장치'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실증을 통해 FDA 인증과 미국시장 진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해당 장치는 탄소소재를 활용해 수술 정밀도와 환자 편의성을 모두 개선한 혁신기술로 메이요클리닉과의 협업을

통해 미국 및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개척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식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미국 방문은 유럽에 이어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중심지인 미국에 전북 바이오 기업들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미국과 유럽을 잇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 리스크를 경감하고, 오는 6월 개최되는 BIO USA 2025에 도내 기업들과 함께 참가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 시범사업

결제금 20% 정부 추가 지원 정읍 샘고을시장서 첫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와 손잡고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 시 20% 플러스 혜택을 받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대형마트 등지에서만 적용되던 POS 기반 할인 시스템을 전통시장으로 확대한 것이다.

농축산물 상시할인 사업은 전통시장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첫 시도다.

특히 대형마트는 주기별로 할인품목이 제한되는 반면 시범사업 시장에서는 국산 농축산물이면 모두 할인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으로는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마련된 통합 POS 시스템에서 이용권을 구매하면 정부가 결제 금액 20%를 추가 지원해준다. 기간 총액은 1억 2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 2만 원을 충전하면 4천 원이 추가돼 총 2만 4천 원 상당의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용권은 5,000원 단위로 충전 가능하며, 2주 단위로 최대 2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주요 전통시장에서 2개월간 운영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종료 후 운영성과와 개선사항을 종합 검토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전통시장도 디지털화와 현대화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읍 샘고을시장이 선도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김슬지 도의원, 공공형 키즈 카페 조성 위한 정책세미나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지난 11일 전북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자치도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북자치도의회 최형열(기획행정위원회)·임승식(농림축산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심미경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숙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장, 조막래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했고, 심미경 박사가 공공형 키즈카페와 관련된 전남의 사례를 발제한 뒤 종합 토론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심미경 박사는 발제를 통해 "최근 기후 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실내 어린이 놀이 공간인 키즈카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군간 경제 격차로 인해 놀이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저출생 대응 정책은 아이를 낳는 것을 넘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기에, 공공형 키즈카페 정책이 새로운 해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종합 토론 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 도-시군 협력 사업 발굴 △포용적 아동지원(일반 및 장애 아동 평등한 이용 보장)을 위한 통합놀이공간 조성 △가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구성 △기존 아동 놀 권리 사업 분야 세분화 등이 대책 방안으로 논의됐다.

김슬지 의원은 "현재 전북보다 상황이 나은 서울시, 인천시 등 대도시들도 공공형 키즈카페를 저출생 대책의 핵심으로 추진 중이기에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전북형 키즈카페 정책이 빠른 시일 안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정재근 기자

김관영 지사“조기 대선, 현안 추진 골든타임”

간부회의서 도정 정비 내부 현안 추진력 총력 주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에 돌입한 지금, 도정 현안을 정비하고 추진력을 확보할 골든타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조기 대선은 도정 현안 추진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올림픽 유치, 대광법 개정안 후속조치 등 산적해 있는 내부 현안에 추진력을 마련하고, 연초 세운 실과 출연기관의 목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 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제1회 추경과 관련해 “민생경제 활성화와 올림픽 유치 대응 등 주요 현안의 신속한 예산 반영을 위해 추경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핵심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도의회의와 소통을 강화해 필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응하라”

고 주문했다.

김지사는 “도정 주요 현안 중 지역 정치권에서 관심도가 높고, 공감대 형성이 돼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들 관심 현안을 탐색해 적극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전북사랑도민증 홍보와 관련해, “전북사랑도민증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여행 등을 통해 생활인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며 “전북 의 거주하는 친구, 친척, 지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할 것을 지시했다.

출연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과 관련해 “매년 시행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하고, 부족했던 결과는 반면교사 삼아서 올해 발표되는 결과에서는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산하기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4개 문화도시 상생협력 머리 맞대

전북자치도는 '전북 문화도시 상생협력 네트워크 실무위원회'를 지난 11일 고창 신재효 판소리공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실무위원회는 이날 도내 4개 문화도시 간 본격적인 상생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회의는 전주, 익산, 완주, 고창 등 법정 문화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다.

전북자치도 이경영 문화산업과장, 전북연구원 장세길 박사, 강승진 전 춘천 문화도시센터장 및 시군 문화도시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했다.

상생협력 회의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한국 2035의 '문화도시 3.0' 정책 방향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다.

특히 문화도시 3.0 '핵심'으로는 기존 도시중심에서 광역 단위로 전환하고 협력형 거버넌스 문화 생태계로 재편하는 것이다.

전북은 시대적 흐름속에서 광역 문화

도시 새로운 모델을 실무 현장에서부터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북 문화도시 네트워크는 단순한 행정 협의체를 넘어 각 도시 문화자산을 공동 기획·운영의 방식으로 연결해 광역 문화공동체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상생모델은 문화격차 해소, 콘텐츠 경쟁력 강화, 주민 참여 확대 등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과제들을 지역 중심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경영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과장은 “문화도시 3.0 시대는 지역 간 연결과 협력이 핵심으로 전북이 그 시작점에서 광역형 협업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전북 문화도시 상생 협력 네트워크가 2036 하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이끄는 든든한 마중물이자, 전 국민이 주목하는 지역 문화 혁신의 상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윤준병 의원 ‘아빠찬스’ 채용 특혜 방지법 발의

채용비리방지 법률적 근거 마련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 기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아빠찬스 채용 특혜 방지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연구원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서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가 시작되는 등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채용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과 사학 등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



윤준병 의원

는 인사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수수, 자녀 채용 특혜 등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임에도 명확한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채용비리 사건은 개별 관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토대로 다루지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방해죄의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는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기회를 박탈당한 입사지원자가 아닌 해당기업 자체 또는 해당기업 임직원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물론, 현행 법률이 채용절차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에 그치고 있는 만큼 채용비리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채용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채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채용비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법률을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벌칙 규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며, 특히 청년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채용과정에서의 공정마저 무너지고 있는 만큼 청년들의 사회적 박탈감을 키우는 채용비리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하루 빨리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과기정통부·경북과 지역기술투자 협약

도,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비수도권 기업 성장 견인 지역 기업 실질적 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 우)와 함께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지난 11일 대전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에서 지역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 간담회로 진행했다.

기업투자활성화는 지난 1월 500억 원 규모로 결성된 제5-3차 연구개발특구 펀드인 영호남권 특구펀드에 전북특별 자치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15억 원과 30억 원을 추가 출자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는 지역 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는 연구개발특 구펀드를 활용해 지역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사업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 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 력을 통해, 지역 기술기업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 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특구 펀드를 활용한 지역 혁신기업 지원 사 례 공유 △지자체별 기술투자 촉진 전 략 논의 △벤처캐피탈의 지역 투자 확 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 석자들은 지역별 기술 사업화의 현황과 투자 유치의 어려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 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 과혁신관은 "그간 연구개발특구펀드는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약 79%)해오며 지역의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성장을 견인해 왔다"며 "향후 과 기정통부와 지자체의 지속적 협력을 통 해 지역 맞춤형 투자로 펀드의 효율성 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벤처투 자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발전은 지역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중요한 핵 심이다"며 "전북자치도는 비수도권 지 역에서 선제적으로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 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생활밀착형 시설 1,447개소 전방위 안전 점검 돌입

두달간 안전 총력전 민·관 합동 주요시설 점검 드론·열화상까지 동원

도민 생명과 직결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관리 강화에 총력전이 펼쳐진다. 전북자치도는 오늘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61일간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해 도내 생활밀착형 주요 시설 1,447개소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점검에 돌입한다. 도는 앞서 지난 11일 '2025년 집중안 전점검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회의는 도민안전 실장 주재로 진 행됐으며, 14개 시군 재난안전국장들이 참석해 집중안전점검 추진방향과 현안 과제에 대해 여러 논의들이 오갔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4일부터 61일간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해 도내 생활밀착형 주요 시설 1,447개소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점검에 돌입한다. <사진=전북자치도>

이번 점검에는 최근 사고사례 및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위험성이 높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40개 시설 유형을 선별 했다.

대상에는 공동주택, 숙박시설,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자동차정비소, 가축농 장, 교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설·토목·전기·소방·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 민관합동 점검으로 전문 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또 드론, 열화상카메라, 가스누출탐지 기 등 최신 기술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점검체계도 도입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 시 시정조치하며,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는 "사전 예방과 사후관 리까지 주기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도민 참여 기반 자율안 전 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도민 누구나 점검이 필요 하다고 느끼는 시설을 신청할 수 있으 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공유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우기 전 범람대비 하천 환경 대대적 정비사업

하천 인프라 정비 박차 재난대응체계 강화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우기전에 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하천 및 소 하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 11일 전주시의 주요 계획안을 보 면 3개 국가하천(전주천, 소양천, 만경 강)과 16개 지방하천(삼천 등), 13개 소 하천(안산천 등) 등 전주시역 주요 하천 이 안전점검 대상이다. 전주시는 홍수기 전까지 미비점을 보 완하는 등 홍수 피해 예방 및 시민 불편 을 최소화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세 방·호안, 산책로, 배수문(15개소), 가동 보(4개소) 등의 유지·관리 상태 △하천 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 현 황 △진행 중인 하천공사 현장 등이다. 또 우기에 앞서 응급조치 및 현장 순찰 을 강화해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한 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우기전에 하천범람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하천 및 소하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사진=전주시>

퇴적토(전주천 객사천 합류점, 완산교, 백제교) 제거와 고사 식물·잡목 제거(전 주천 승암교~진북교, 삼천 세내교~서곡 교) 등 재해예방 하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동시에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 천 산책로 조도 개선과 풀베기, 화장실 설치, 무단 쓰레기 제거 등 하천 환경 개 선사업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여름철 재해예방사업도 추 진하고 있다. 먼저 지역단위로 방재시설을 통합해 재해 위험 요인을 일괄 해소하기 위한 '홍수해 생활권사업'으로는 총 440억 원 을 투입해 조촌 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미산(360억 원) △객사 천(368억 원) △월평(461억 원) △공덕

(250억 원)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재 해위험별로 지정된 위험성이 높은 지역 을 정비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전개한다. 여기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사면 을 보수 보장하는 급경사지 정비사업으 로는 서서학동 성결지구(5억 원)와 서 서학 10지구(20억 원)를 마무리한 데 이 어, 현재 중화산동 도토리골지구(83억 원)와 우아동 아중호수길지구(70억 원) 등에 대한 붕괴위험지구 정비를 추진하 고 있다. 이밖에 저지대에 급속히 증가하는 빗 물을 일시적으로 가두는 시설인 우수저 류시설 설치사업으로는 사업이 완료된 전주초지구(125억 원)와 대화지구(171억 원), 송원1지구(254억 원)에 이어 지 난 2020년 침수 피해가 발생한 평화동 신성공원 일대 도심지 침수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총 272억 원을 들여 신성공 원 내 지하저류조를 설치하고 학소제를 정비하는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딸기·포도 등 7개 품목 고품질 생산부터 수출까지 지원

농촌진흥청(청장 귀재환)은 '프리미엄 수출단지 기술지원 첫 기획 회의(리코 프)'를 지난 11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 터, 수출단지 대표 농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과 수출 전략을 수립, 국내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에는 △우량묘 생산 및 고온 가·저온기 환경 관리 △생리장해 예방 및 병해충 방제 △적정 착과 및 당도 유 지 △수확 후 저장성과 선도 유지 기술 등을 포함해 수출 전 과정에 걸친 밀착



농촌진흥청은 '프리미엄 수출단지 기술지원 첫 기획 회의(리코프)'를 지난 11일 본청 국 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사진=농촌진흥청>

형 기술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품

질 기준과 다양한 기후 환경 조건에 대 응해 우리나라 농산물 품질을 한층 높 이고, 실효성 있는 수출 전략을 마련해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해 농촌진흥청은 딸기, 포도, 배, 고 구마, 참외, 키위, 복숭아 7개 품목, 전국 10개 수출단지를 대상으로 '프리미엄 수출단지 기술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 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 통합조 직 등과 긴밀히 협력해 품질 고급화, 포장 개선, 상표(브랜드)화 및 해외 판촉 (마케팅)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체계 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청, 아시아 크루즈 네트워크 합류

ACLN 가입 신청 세계 진출 발판 마련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 만금 크루즈 산업의 기반 조성과 국 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가 가입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 (ACLN)는 2013년 창립된 대규모 네 트워크로 크루즈 선사, 관련 기업, 정부, 학계 등 80여 개 기관이 참여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1일 아시 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금년 7 월에 열리는 제주국제크루즈 포럼 에서 가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ACLN 가입을 통해 아시아 지역

크루즈 관광진흥을 위한 의견 교환, 포럼 및 워크숍 개최, 공동 사업 추 진 등 새만금 크루즈 산업의 기반구 축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하반기 새만금 신항만 개발에 맞춰 세관·출 입국·검역(CIQ) 운영체계 구축, 국 내외 크루즈 유치방안 등 새만금 크 루즈 기항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 략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ACLN 활동이 아시아 지역의 크루즈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새만금 크 루즈 유치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도 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금년 7 월에 열리는 제주국제크루즈 포럼 에서 가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ACLN 가입을 통해 아시아 지역



북전주농협·전주시·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북전주농협 딸기 공선회에서 생산하는 딸기 품종 '설향,금실' 수출 선적식을 지난 10일 가졌다. <사진=북전주농협>

북전주농협 딸기 '금실, 설향' 캄보디아 수출 선적

새 판로 개척 농가 소득 증진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 전주시 (시장 우범기),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 인(대표 이승진)은 북전주농협 딸기 공 선회에서 생산하는 딸기 품종 '설향,금 실' 수출 선적식을 지난 10일 가졌다. 설향은 국내 딸기 약 85%를 차지하 고 있는 대표적인 딸기 품종이다. 금실은 크고 단단하며 식감이 매우 좋아 수출에 적합한 품종이다. 북전주농협에서는 딸기 농가 발전을

위해 '21년도에 GAP딸기 공동선별장을 신축함에 따라 생산량과 판매량이 대폭 증가했다. 북전주 권역 딸기 첫 캄보디아 수출 은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농가 소득 증 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이우광 조합장은 "조합원이 잘 사는 농협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캄보디아 딸기 수출이 큰 의미를 가진다"며 "철 저한 선별·관리를 통해 k푸드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이정환 전북농협본부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이정환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인구 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 했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 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 원이 함께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부 처,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릴레 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북농협은 범농협과 함께 △출생 장려금 지원 △난임 의료비 및 난임 치료 휴가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가 족 돌봄 휴가 △장애인 자녀 양육비 등 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환 본부장은 심덕섭 고창군수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그



는 다음 주자로 연원섭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과 김동인 농어촌공사 전북 본부장을 지목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전북농협은 저 출생·고령화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 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정읍시 범 농협, 산불피해 성금 1,000만원 기탁

정읍시 범 농협은 지난 3월 정읍시 소 성면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 해 주민 돕기 성금 1,000만원을 정읍시 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한 김순기 NH농협 정읍시 지부장, 유형기 황도현농협 조합장, 정읍시조합 운영협의회 회장 샘골농협 허수종 조합 장 및 관내 농·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 했다.



이번 성금 모금은 정읍시 범 농협 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총력’

서 교육감 “장애 인식 개선 편견 없는 메시지 전달”

특수교육을 2025년 10대 핵심과제로 추진중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장애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활동을 펼친다.

전북교육청은 내달 10일까지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더 특별한 장애공감교육’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는 달라, 달라서 더 빛나’를 주제

로 약 한 달간 도교육청 1층 공간을 활용해 발달장애 학생 작품 전시 및 장애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도교육청 1층 현관에는 동암차돌학교 중학교 1학년 김문찬 학생(발달장애)의 작품 15점이 ‘우주에서 날아온 별’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된다.

김문찬 학생은 2021년 전라북도 발달 장애인 사생대회 은상을 시작으로 각종 그림 공모전과 전시회 출품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 작가로, 동물을 특유의 시선과 밝은 색깔로 담아내는 게 특

징이다.

이를 통해 편견없이 바라보면 누구든 각자의 색깔로 반짝이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김문찬 학생 작품에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은희 동화작가 이야기를 더해 ‘달랠라 모두의 축제’라는 그림책 자료도 개발한다.

이 그림책은 각 학교에 장애공감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보급할 예정이며, 김문찬 학생과 전은희 작가의 협업 이야기는 오는 28일 통합학급 담당교원 연수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 공감 홍보영상에는 장애·비장애 학생들과 서거석 교육감이 함께 출연해 노래 가사의 일부를 수어로 전달한다. 이 영상은 전북교육청 유튜브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은 “장애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 중 하나일 뿐”이라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조운영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면역기능 조절 소포체 연구 세계적 저널에 논문 게재

전북대학교 조운영 박사과정생(공대 화학공학부, 지도교수 민지호)(사진)이 최근 대전에서 열린 ‘2025 한국생물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에서 우수 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조 대학원생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세포유래 유용세포소기관인 리소좀을 기반으로 면역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소포체를 재구성한 내용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중앙 환경 내 면역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 박사과정생은 이와 관련된 연구로 세계적인 저널 ‘Biomacromolecules’ (Impact Factor 6.2, JCR 상위 4.8%)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바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4년도 이공분야 학부후속세대 박사과정생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운영 박사과정생은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질병에서 면역 기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소포체 활용 연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6개소 확장

군산키움병원 신규 지정 진료서비스로 공백 해소

전북자치도 소아 야간 및 휴일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이 신규로 지난 11일 지정됐다. 이로 인해 지역내 소아들이 빠른 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아 야간·휴일진료기관관 경증 소아 환자가 평일 야간 및 휴일에도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도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아 야간·휴일진료기관을 확대해 왔다.

14일 도는 군산 키움병원을 신규 지정함으로써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해 운영하게 된다.

△(‘22년) 2개소 → (‘23년) 4개소 → (‘24년) 5개소

△대자인병원, 다솔아동병원, 해맑은 연합소아청소년과(전주), 민음병원(김



제), 엔젤연합소아청소년과(부안)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없었던 군산시에서는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사업계획서 및 현지점검 등 심사 결과를 검토 후 도에서 키움병원을 신규 지정하게 됐다.

△운영시간 : 평일 야간 18:00~23:00 / 토·일·공휴일 09:00~18:00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지정된 진료요일 및 진료시간에 따라 경증 질환을 진료하며, 응급상황 시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운영시간 등에 따라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올해에는 소아진료 활성화지역, 소아

진료 관심지역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강화된다.

△(소아진료 활성화지역) 만 18세 이하 인구가 3만명 미만인 시·군·구

△전북(11)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소아진료 관심지역) 소아진료 활성화지역 중 응급의료취약지역(공공보건의료법)이면서 인구감소지역(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전북(9)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노장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장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로 부모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취약시간 대 소아 진료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소아의료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국립군산대학교 풍력 지지구조시스템 에너지혁신연구센터(이하 EIRC)는 11일 덴마크 공과대학(이하 DTU)과 풍력분야 기술교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군산대학교>

군산대-덴마크 DTU, 해상풍력 기술교류회 진행

풍력분야 교육·연구역량 강화 DTU 풍력발전 실험시설 견학

국립군산대학교 풍력 지지구조시스템 에너지혁신연구센터(이하 EIRC)는 11일 덴마크 공과대학(이하 DTU)과 풍력분야 기술교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교류회는 센터 참여 학생연구원들의 풍력분야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계획됐으며, DTU Wind Energy가 위치한 덴마크 Risø 캠퍼스에서 주요 연구 주제들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논의했다.

특히 행사 참여 학생연구원들은 DTU Risø 캠퍼스 내에 설치된 다양한 풍력발전시스템 실험시설 견학 등을 통해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대용 국립군산대 EIRC 센터장은 “금번 DTU와의 기술교류 행사를 통해 우리 학생연구원들이 풍력분야 선진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수준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풍력 지지구조시스템 에너지혁신연구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재정 지원을 받아 지난 2022년 4월에 설립된 풍력발전 분야 국내 대표 연구센터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6개 직렬 71명 선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임용시험에서는 △교육행정 25명(일반 21, 장애 3, 저소득 1) △사서 4명 △공업 4명(일반기계 2, 일반전기 2) △시설 6명(일반토목 3, 건축 3) △시설관리 16명(일반 14, 보훈부 추천 2) △운전 16명(일반 14, 보훈부 추천 2) 등 총 6

개 직렬 7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사이트(<http://edurecruit.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취소는 2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6월 21일, 면접시험은 8월 14일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9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 클래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 클래스(talking class)’를 오는 22일부터 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 클래스는 2024년에 운영됐던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 클래스의 새로운 이름이다.

올해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 클래스는 총 4기로 구성, 1기수당 9주씩 수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이며, 원어민 강사와 학생 1:3 수업으로 진행한다.

1기 운영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며, 신청은 오는 14일 18:00시부터 17일 20:00시까지 온라인사이트에 접속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도 원어민 화상영어를 운영하고자 한다”면서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ENERGY SENSE CAMPAIGN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

군산시, 숨은맛집 발굴 14일~25일까지 참여업소 모집

군산시가 지역 대표 '맛집' 선정을 위한 대상 업소를 1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대표 음식점을 발굴하여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군산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 참여 설문조사 △영업자 직접 신청 △외식업 단체 △음면동 등 시민과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군산의 숨은 맛집을 발굴할 예정이다.

신규 맛집 선정 심사기준은 영업 신고 후 3년이 지난 일반음식점으로 업소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현장평가 △전문가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현재 36개소 군산 맛집이 운영되고 있다.

선정된 업소는 맛집 지정증 수여, 표지판 부착,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위생용품 등이 지원되며, 누리집 및 홍보책자를 통해 대표 음식 소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www.gunsan.go.kr)을 참고하거나 시청 위생과 식품위생계에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노인 의료복지 확대 눈·무릎관절 수술 지원

정읍시가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백내장, 녹내장 등의 눈 질환과 무릎관절 수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눈과 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눈 의료비 지원은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이며 무릎관절 지원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에게 제공된다.

다만, 비급여 수술비, 지원 대상 이전 발생 의료비, 통원진료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수술 전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 시 수술 예정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의료비 지원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눈 수술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무릎관절 수술은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수술을 완료해야 한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지원

정읍시가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지역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꾸러미를 임산부에게 제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물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자격 검증을 위해 예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비대면 인증을 완료하거나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예코이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 신청 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꾸러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8만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20%(9만 6000원)를 부담하면 지정된 소품물에서 과일, 채소, 축산물 등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주문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조기 대선 반영 공약 마련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대선공약 반영에 총력

익산시가 조기 대통령 선거에 발맞춰 대형 국책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역 발전을 견인할 대형 프로젝트성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시작으로 △스마트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구축 등 분야별 대선공약 사업을 준비해 현재까지 10여 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우선 '스마트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은 연구부터 교육, 창업,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형 생명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익산을 대

한민국 그린바이오 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

익산은 국내 1호 그린바이오 벤처캠 퍼스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등 관련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적 강점을 지니고 있다.

시는 이번 구축 사업을 통해 △연구 개발 혁신센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융합형 비즈니스센터 △천연소재 전주기 지원허브 등 4대 핵심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프로젝트'는 생태축 복원과 함께 한·영 협력사업 에텐프로젝트의 온실 정원 조성을 결합했다. 자연자원 회복을 통한 생태관광 중심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특히 생태도시 익산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국제적 관광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국립식품박물관 건립'도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기반으

로 한 식품산업의 대중화와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익산이 식품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구축'은 새만금과 내륙을 연결하는 철도 수송체계 확보를 통해 식품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K-식품벨트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기여하는 교통망 전략사업이다.

시는 향후 전북도와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별 타당성 자료를 보강하고, 주요 정당의 정책담당자들과 전략적으로 접촉해 공약 반영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의 미래를 바꿀 국책사업들이 주요 정당의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며 "꿈이 담긴 공약들이 현실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수제맥주 대표도시로 군산 뿔다

서울 코엑스 박람회 10~12일

홍보관 운영 '군산 맥아' 주목

대한민국 수제 맥주 대표도시로 떠오른 군산시가 제7회 대한민국 맥주 박람회(KIBEX 2025)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제7회 대한민국 맥주 박람회(KIBEX 2025)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업계 관계자와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 군산시는 △국내 유일무이한 국산 맥아인 '군산맥아' △'군산맥아'를 이용한 '수제 맥주'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수제 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을 홍보하는 중이다. 특히 3개의 군산시 수제 맥주 창업업체(메인쿤브루잉·해적브루잉·운룡양조)도 동참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홍보관에는 수제 맥주 애호가



군산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제7회 대한민국 맥주 박람회(KIBEX 2025)에서 홍보관을 운영했다

<사진=군산시>

인 일반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국내 수제 맥주 13여 개 업체가 방문해 '군산맥아' 구매 관련 상담을 청하는 등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관계자는 현대백화점의 경우 군산 수제 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 영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전국의 현대백화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다자녀 가구 대학생 학업 부담 뚫다

학기당 100만 원 장학금 지원

14~22일 방문·온라인 접수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이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정책을 추진한다.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은 다자녀가정의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

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다익산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다익산 장학금 지원 대상은 본인을 포함해 형제·자매가 5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대학생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학기당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22일까

지로 교육청소년과에 방문하거나, 익산시 누리집 통합예약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사랑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59-5820, 515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여가·운동·기업·회의·공간

근로자와 시민 삶의 질 향상

근로자에게는 여가와 운동, 기업에게는 회의와 연구 공간을 제공하는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지역 내 정주환경 개선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신청동 첨단산업단지와 북면 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각각 복합문화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이들 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회의, 교육, 박람회 등 업무 지원은 물론,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일자리 환경과 정주 여건을 함께 조성하고 있다.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지상 3층, 2개 동에 연면적 약 3100㎡ 규모로 헬스장과 다목적체육관, 북카페, 동아리방, 대강당, R&D지원센터 등 다양



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제3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지상 2층, 1개 동에 연면적 약 1600㎡ 규모로 탁구장, 당구장, 독서공간, 회의실, 편의시설 등 실생활에 밀접한 시설이 조성돼 있다.

시는 지난해 4분기부터 양 센터에서 헬스, 요가, 에어로빅, 기타, 탁구,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기준 총 255명이 회원으로 등록해 매일 센터를 이용 중이다.

더불어 개관 이후 1년 동안 연구기관, 기업체, 단체 등이 약 90건의 회의, 행사를 개최하며 시설을 활발히 활용해 복합문화센터가 정읍시의 실질적인 문화·업무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축제시민평가단 본격 활동

20~60대 다양한 연령층 구성

군산시는 오는 24일 풍당보리축제부터 축제시민평가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군산시 축제시민평가단은 공개모집과 단체추천을 통해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 4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축제의 부족한 부분을 시민의 의견으로 채워간다'라는 의미를 담아 '군산축제제움단'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활동한다.

'군산축제제움단'은 12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풍당보리축제 △군

산수제맥주 &블루스페스티벌 △군산국가유산야행 △군산시간여행축제 등 군산시의 주요 축제와 행사에 참여해 양행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콘텐츠 △홍보 및 현장 운영 △지역사회 기여 총 3개 분야 16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제와 행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험한 후 각 항목에 대한 평가의견을 작성해 시에 제출하게 된다. '군산축제제움단'의 최종 평가 결과는 해당 축제를 주관한 부서와 공유되어 앞으로의 축제 운영 개선에 반영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농업인 경영 안정에 팔 걷은 익산시

35억 투입 농기계 임대 확대

익산시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나선다.

익산시는 총 35여억 원을 투입해 △농기계 임대 확대 △스마트 농기계 보급 △농업을 면세유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 기계화로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시는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농작업 기계화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망성면에 북부 분소를 조성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했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8,000여 농가

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 감면을 유지하고, 농번기(3~6월) 토요일 근무와 일요일 상황 근무로 영농 적기 대응을 강화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농기계 보급도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는 4억 800만 원을 투입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드론 15대와 자율주행 트랙터 키트 5대 등 스마트 농기계를 보급하고, 드론 활용 교육도 추진한다.

시는 영농활동에 필수적인 농업용 면세유 지원도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 총 975만 리터의 면세유에 대해 리터당 △휘발유 81원 △경유 87원 △등유 91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정읍시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만원까지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을 포함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경영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제4기 청년희망 네트워크 출범

익산시가 청년들과 함께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꿈을 이룰 수 있는 익산' 만들기ye 나선다.

시는 지난 11일 익산청년시청에서 '제4기 익산시 청년희망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 중심의 시정 운영을 본격화했다.

'청년희망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성된 협의체로, 익산시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에 출범한 제4기 청년희망 네트워크는 대학생과 회사원, 자영업자 등이 참여한다. 다양한 직군의 청년들이 모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으로 기

대를 모은다.

이날 발대식에서 익산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청년 정책을 공유했다. 이어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다졌다. 청년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2년 동안 △주거 △일자리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활동한다.

시는 청년희망 네트워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 청년·신혼·다자녀 전세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최대 2년 연장도 가능

완주군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18~39세 무주택 청년, 혼인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가구 기준이 완화됐다. 지난해에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였지만 올해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

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무주택 가구로 기준이 완화됐다.

신청일 기준 완주군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8,000만 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이며,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기관별 직인이 포함돼야 한다. 단,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이 돼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 완주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서울서 춘향제 '프레스·엠버서더 데이'

K-문화자산 춘향, 엠버서더로 시장브리핑·한복 패션쇼 눈길

남원시가 춘향제의 정체성과 특별한을 언론에 공개하는 자리, 춘향다움을 K-문화자산으로 빌드업하는 행사를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피크 컨벤션 1층 파크홀에서 개최했다. '제95회 남원 춘향제 프레스 데이' & '춘향 엠버서더 네트워킹 데이'가 그것.

이번 행사는 제 95회 춘향제 'D-20일' 맞아 1부 대한민국 대표 전통축제인 춘향제를 국내외에 소개하는 프레스데이와 2부 '춘향 엠버서더'를 공식화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에 남원시는 '1992년 전국 춘향선발대회 진' 국악인 오정해씨 진행으로 1부에서는 국내 최장수 축제인 춘향제를 소개하는 히스토리 영상과 함께 쇼케이스 공연으로 국악인 오정해씨의 소리, '조갑녀 전통춤보존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무용가 정명의 선생의 승



남원시가 '제95회 남원 춘향제 프레스 데이' & '춘향 엠버서더 네트워킹 데이'를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피크 컨벤션 1층 파크홀에서 개최했다. <사진=남원시>

무 등을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특히 최경식 남원시장이 서울 소재 중앙일간지 여행담당기자, 한국 주재 외신 기자단, 국내외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직접 브리핑하는 등 글로벌 축제로 나아가는 제95회 춘향제의 방향성과 판권포인트 등을 소개,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하이라이트로는 2006년

전국 춘향선발대회 황은진씨를 포함한 역대 춘향 10명이 최경식 남원시장이 함께한 '춘향 엠버서더 한복 패션쇼'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2025 춘향 엠버서더 네트워킹 데이' 자리가 이어졌으며 역대(당대) 춘향 34명이 참여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양지천 일대 꽃잔디 만개...지역 새 명소 부상

수변 개발사업 성과 '활짝' '참두름 여행' 만반 준비

순창군 양지천 일대가 봄꽃으로 뒤덮이며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민선 8기 5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양지천 산책로 약 2km구간에 꽃잔디와 수선화, 튤립 약 70만 본이 활짝 피어나, 봄나들이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총 1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은 자연친화적인 명품하천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양지천을 정비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경천 산책로변 꽃길 조성, 경천·양지천 합류부 공원 조성, 음악분수대 설치 등 다양한 경관시설을 추가로 조



순창군 민선8기 역점사업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로 조성된 양지천 산책로 일대의 수선화·튤립이 만개하며 봄나들이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사진=순창군>

성할 계획이다.

현재 양지천에는 자줏빛 꽃잔디와 노란 수선화가 활짝 피어 봄의 절정을 알리고 있다. 특히 수선화는 황금빛 물결을 이루며 산책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고 있으며, 꽃잔디는 화려한 카펫처럼 펼쳐져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군은 만개한 봄꽃으로 물든 양지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순창의 봄 정취를 한껏 만끽할 수 있는 '순창 참두름 여행' 축제가 오는 18~19일 양지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사업 지원 선정

남원형 의료·돌봄 고도화 박차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3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돌봄 기능과 대상지역의 확대를 통해 남원형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이 더욱 고도화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3년 동충동, 향교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번 공모사업은 △복지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및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 △남원

복지안전 119' 앱 기능 개발이 주요 내용이다. 2024년도에 노암동, 금동지역이 추가됐고, 올 해 또 다시 공모 선정돼 죽향동, 왕정동, 도봉동 지역까지 확대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돌봄 취약계층층 안전망 지역이 확장될 예정이다.

복지안전협의체는 마을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범대, 주민자치회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위험 지역 예찰활동 및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은 안전 취약 가구(독거노인, 돌봄 취약계층)를 대상으로 가정 내 TV 등 가전제품에 플러

그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전력 사용량과 온도 변화로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감지한다.

남원 복지안전 119앱은 휴대폰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앱으로 올해는 안전 알림 기능(북약, 일정 알림)을 개발해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남원형 통합돌봄 체계가 한층 촘촘해지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하복 기자



남원시는 지난 11일, 전북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270여 명을 초청해 '남원문화체험 교류행사'를 개최했다. <사진=남원시>

남원, 전북대 외국인 유학생과 문화 소통

한국어학당 270여명

남원 문화체험 교류행사

남원시는 지난 11일 전북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270여 명을 초청해 '남원 문화체험 교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남원의 대표 문화와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남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전북대학교와 남원시 간의 교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대와 남원시는 2023년 '글로벌대학30' 사업에 공동 선정된 이후, 구 서남대학교 부지를 활용한 남원캠퍼스 설립을 목표로 협력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이번 전북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초청 행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내외 기관과의 문화 교류

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다가오는 5월 춘향제 기간에는 부산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남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몽골60번 학교 청소년들도 춘향제에 맞춰 남원을 방문해 전통공연 및 김밥이 행사에 직접 참여해 축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이날 남원을 찾은 전북대 유학생들은 운봉을 소재 '희망씨앗농장'에서 산양 유제품 만들기과 교감 체험에 참여한 뒤, 광한루원과 김병중 미술관, 구서도역 등 남원의 주요 문화 명소를 둘러보며 도시가 품은 예술과 자연, 문화적 감성을 오감으로 체험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는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조성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남원이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광주 센트럴병원과 도농교류 협약

임직원 워크숍·순창투어 협력
상생사업 발굴 지속 교류 추진

순창군은 지난 11일 광주 센트럴병원과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농촌사랑 동행선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최영일 순창군수, 고길석 광주 센트럴병원 대표원장, 최승식 남부대학교 교수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수실에서 진행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임직원 연수 및 워크숍, 순창투어 등 도농교류 활성화와 협력 △세미나실·속박시설 등

순창군 기반시설 활용 지원 △양기관 간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교류 추진 등이 포함됐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광주 센트럴병원은 2015년에 개원해 현재 460여 명의 직원과 30명의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이다.

정형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14개 진료과목을 운영 중이며, 고길석 대표원장은 족부 및 족관절 질환 분야의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올해의 군민대상 수상자 선정

신설 환경 분야 비로 8인
6월 군민의 날 시상 예정

완주군이 제60회 완주군민의 날을 기념해 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군민을 선정했다.

지난 10일 완주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60회 완주군민대상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문화교육, 나눔봉사, 효열, 애향, 경제, 체육, 농림축수산, 환경 등 8개 분야에서 각 1명의 수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특히, 올해는 환경 분야를 신설해 첫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

수상자는 △문화교육분야 김광식(《(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 완주군지부장》) △나눔봉사분야 최금채(완주군 행복나눔봉사단장) △경제분야 국원호(완주한우협동조합 조합장) △애향분야 김경희(재경완주군민회장) △효열분야 이정숙(삼례읍부녀연합회장), △체육분야 권승환(완주군 스포츠회장) △농림축수산분야 장상순(《(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장》), △환경분야 송행택(《주)정식세미컬 직원》씨)가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오는 6월 완주군청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0회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군민들의 축하 속에 시상



문화교육 김광식



나눔봉사 최금채



경제 국원호



애향 김경희



효열 이정숙



체육 권승환



농림축수산 장상순



환경 송행택

식을 진행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단계별 9개 마을 선정 지원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025년 '생생마을 만들기사업'으로 기초 단계 5개 마을, 플러스 단계에 4개 마을을 선정 적극 추진한다. '생생마을만들기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삼라농정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직접 추진하거나, 중간지원조직과 협업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농촌에 활력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생생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활기를 되찾으며 활력 넘치는 농촌으로 거듭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마을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생생마을만들기 기초 단계는 △마을 경관 사업(대강 사촌마을, 수지 초리마을, 산동 부동마을), △주민역량 강화사업(송동 장포마을), △주민역량 강화 및 마을 경관 사업(금지 서재마을)으로, 마을당 각 6백만 원을 지원한다.

생생마을만들기 플러스 사업은 전북자치도 공모사업으로 △마을 주민 평생교육 지원(주생 영촌마을, 아영 외지마을), △마을축제 운영 활성화 지원(덕과 솔비람권역마을), △산촌 마당캠프 활성화 지원(대강 월산마을) 사업별로 각 마을당 4백만 원~1천 2백만 원을 지원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남원시는 '생생마을만들기사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 관계자와 선정마을 대표자와 실무자가 함께 참석해 사업과 집행관련 설명을 듣고, 마을별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부안 공무직노조 고향사랑 상호기부

완주군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김상곤), 부안군 공무직노동조합(지부장 이말순)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상호 기부로 지역 간 따뜻한 연대와 상생의 모범을 보여줬다.

양 단체는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취지에 공감하고, 상호기부를 추진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조합원 각각 85명이 참여해 총 850만 원씩 상호 기부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상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완주군은 이번 기부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말순 부안 지부장은 "이번 상호기부가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 전기이륜차 보급 추진 최대 300만원 구매 보조금

순창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9일부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39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할 예정이며, 차종별로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신청방법은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대행 신청한다.

특히,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3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군산군대역사박물관, 구비민요 재조명 기획전

군산군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오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기획전시 <천리따라 구비구비(碑碑)를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시는 특정한 작사자나 작곡가 없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 발생한 구비민요를 사람의 일생과 접목해 재조명하는 전시이다. 전시자료는 민요 채록 파일 51건, 전시물 281점으로 박물관 소장품을 비롯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근대기록문화조사팀 등 8개 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민 위한 감동의 무대, 연극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

정읍시가 시민에게 따뜻한 연대의 가치를 전하는 연극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을 오는 25일 오후 7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해방 이후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일본인이 떠난 마을에 남겨진 조선인과 늙고 병들어 버림받은 일본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삶의 돌파구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공연 입장권은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예매할 수 있다. 관람료는 8000원으로 정읍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남군산교회, 11년째 41명에 장학금 3,620만 원 지원

군산시는 지난 10일 남군산교회(담임목사 이신사)가 군산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1명에게 총 3,6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된 남군산교회의 장학금 수여식은 올해로 11회를 맞으며 지역사회의 훌륭한 인재 성장에 커다란 공헌을 해왔다. 장학금은 교회에서 모은 성금으로 조성하며, 지금까지 총 406명의 학생에게 약 3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주프라임치과, 치아 임플란트 재능기부

어금니손상취약계층노인 통증치료임플란트 식립

전북자치도 전주시 재봉틀사업에 참여 중인 전주프라임치과(원장 광영훈)가 어금니 뿌리가 잇몸 속에 부러진 채 박혀 있어 통증이 심하고 영양 섭취가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에게 통증 치료와 임플란트 2개(250만원 상당)를 무료로 식립하는 재능봉사를 실시했다.

광영훈 원장은 △어르신 생신

잔치 △큰 가구 이동지원 등 재봉틀 4개 분야에서 활동중인 온누리클럽(회장 이상철)의 회원으로, 평소 상시 진료 때문에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아쉽던 중 본인의 재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임플란트 등 치과치료를 지원했다. 광 원장의 지원으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면서 진통제로 견디던 금암동에 거주하는 87세 김모 씨가 통증 치료와 임플란트 식립을 제공받게 돼 음식 섭취와 건강 유지가 가능해졌다.

/정재근 기자



전주프라임치과가 어금니가 손상돼 통증이 심하고 영양 섭취가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에게 재능봉사를 실시했다 <사진=전주프라임치과>

전주시의회, 자매도시 안동시 산불 피해 구호물품 전달

기저귀등생필품긴급지원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지난 11일 최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매도시 경북 안동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최근 산불 피해에 따라 소속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해 총 5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의회는 성금으로 구매한 성인용

기저귀와 속옷 등 생필품 21박스를 안동시 생활복지과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 남관우 의장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호물품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전주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신진유지건설, 김제시에 1,0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신진유지건설 김용일 부사장과 김진원 이사가 지난 11일 김제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신진유지건설은 지난 1995년 설립해 토목, 건축, 주택 공사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을 하는 기업으로 김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1단계, 2단계 및 재정구간 하수관로 관리대행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일 부사장과 김진원 이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김제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의미 있는 기업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주)명일 김오식 대표, 진안쌀로 따뜻한 나눔

(주)명일 김오식 대표는 지난 11일, 전북자치도 진안군에서 생산된 쌀 4kg 125포대(총 500kg 상당)를 대전광역시에서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자모원에 기부했다. 김 대표는 진안읍 출신으로,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에 위치한 산업용 특수물 제작 전문업체 (주)명일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김 대표는 2023년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모금에 동참하여 3백만 원을 기부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어려운 이웃돕기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 및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김오식 대표의 개인적인 뜻과 사회공헌 철학에 따라 진행됐으며 기부된 쌀은 진안군에서 정성껏 재배한 고품질 쌀로, 지역 농가와 연계해 생산부터 포장까지 직접 관리한 농산물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남원 사매면 어르신들, 다듬잇방 소리로 흥 깨운다

제95회 춘향제를 앞두고, 남원시 사매면(면장 김식록)에서는 특별한 흥겨움이 무르익고 있다. 사매면 어르신들로 구성된 '사매 다듬이 공연팀'이 대동길놀이 무대에 참여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공연을 준비 중이다. 이번 공연은 사매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획된 것으로, 예전 일상 속 소리였던 다듬이 장단을 통해 전통문화의 맛과 흥을 전하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공연은 제95회 춘향제 대동길놀이 퍼레이드 중 사매면 차례에 진행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트로트 가수 김덕건, 3년째 장수군에 기부금 전달

장수군은 트로트 가수 김덕건 씨가 지난 10일 장수군청에 직접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가수 김덕건 씨는 전북 진안군 출생으로 2019년 싱글앨범 '돌아와 줘'로 데뷔했으며 '강천산 도라지' 등의 앨범을 내며 트로트 가수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장수군 애환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부했고, 고향사랑기부금도 3년 연속 100만원을 꾸준히 기탁해 지역 사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대한방통협회 임직원들, 무주군에 산물 피해 성금

대한방통협회 회원들이 지난 11일 무주군에 산물 피해 주민들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써 달라며 성금 5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용철 회장은 "산불로 인한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성금을 아름다운 무주의 산을 다시 푸르게, 놀란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데 써달라"고 말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잠깐만요! 버리기전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내집, 내점포앞에 배출

배출 시간 20시~다음날5시

검은봉투 배출 금지 투명봉투에 배출

용기안의 내용물 깨끗이비우기

부착상품 제거후 타 재질 분리배출

〈一事一言〉



윤석열 파면에 배아픈 일부 언론의 놀부 심보(1)

송요훈
언론인

마침내, 결국, 드디어, 윤석열은 탄핵되었다. 온갖 분탕질로 나라를 어지럽힌 윤석열 부부 정권은 막을 내렸고, 윤석열의 이름 뒤에는 ‘전(前)’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그렇다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것 빼고 달라진 건 없다. 기가 꺾이긴 했지만 내란 세력은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창출에 ‘일등공신’인 조선일보도 그러하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해야 성이 차는 ‘대(大)’ 조선일보는 윤석열에 이어 또 다른 윤석열을 창출하려고 안달하고 있다. 윤석열이 탄핵된 다음날의 조선일보에 그렇게 쓰여 있다.

현재의 윤석열 파면을 전하는 조선일보의 1면 제목에는 별 감흥이 없다. 조선일보의 1면 제목은 “국가 긴급권 남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인데, 의도적으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써서 몰타기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참고로 동아일보의 1면 제목은 ‘8:0 전원일치 “윤계엄은 위헌”’이고, 중앙일보도 1면에 ‘8:0’이라는 숫자를 큼지막하게 박았다. 한겨레는 ‘윤석열 파면...민주주의 지켰다’로 제목을 뽑았고, 경향신문은 1면을 기사 없이 ‘끝내, 시민이 이겼다. 다시, 민주주의로’라는 15글자로 채웠다.

배가 아프다. 속이 쓰리다. 요즘 조선일보가 그렇다. 조선일보 활자에는 놀부 심보가 묻어난다. 조선일보의 행간에선 놀부 마누라

와 뺨덕어미가 고개를 빼죽 내민다. 윤석열은 결국 파면됐고 이재명은 마침내 대통령이 될 것 같다. 8:0 파면이라는 현실은 부정해야 하고, 희망회로를 풀가동하여 윤석열은 갇어도 정권은 뺏기지 않을 거라는 환상을 심어줘야 한다.

대선까지 시간은 촉박하지만 국힘당에는 후보가 많아 경선 흥행을 기대할 만하다. 이재명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지지 후보 없음’이 이재명 지지율보다 높다. 지난해에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지율은 34%다. 국힘당에서 가장 높은 김문수의 8%보다 네 배 이상 높고, 이재명 지지율은 국힘당 후보군을 다 합친 20%보다도 높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조선일보는 ‘차기 지도자는 1위는 ‘없음·모름’씨... 부동층이 이재명 제1’라고 보도했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지지율은 49.5%로 50%에 육박했고, 김문수·홍준표·오세훈·한동훈 등 국힘 후보군을 합친 34.9%보다 훨씬 높았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왜 굳이 부동층이 1위이고 이재명 대표가 2위라고 보도할까? 배가 아프고 속이 쓰려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라는 걸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다. 국힘당 후보들은 그 누구도 실력이든 능력 이든 자질이든 인성이든 그 무엇으로도 이재명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재명은 비

호감이라는 ‘혐오 프레임’을 계속 씌우려는 거다. 지난 대선에서 그랬듯이 이재명을 이기는 유일한 선거전략은 이재명에게 혐오 프레임을 씌우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보도를 하는 언론이 아니라 정치 선전을 하는 매체라는 걸, 조선일보는 그렇게 자백한다.

언론은 사실을 전해야 한다. 칼럼도 마찬가지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라는 게 언론 윤리이고, 조선일보의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게 쓰여 있다. 그런데 지키지 않는다. 조선일보에서 언론 윤리란 돼지 목의 진주 목걸이다. 윤석열 파면 다음 날,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은 기명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시종 찬성 측을 압도했던 것은 계엄 지지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민주당 때문에)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토로하며 광장에 쏟아져 나와서 그런 거라고. 꼭 윤석열을 지지해서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상황을 눈감고 있을 수 없어 나온 거라고. 진짜 그런가? 명색이 자칭 일등신문의 논설실장인데 사실 왜곡을 넘어 흑과 백을 바꿔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탄핵의 강’을 넘어 ‘이재명의 강’을 넘어야 한다. 국정안정에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거대 야당 대표가 도리어 혼란을 부추기는 ‘리스크 유발자’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담을 늘어놓고

저주를 퍼붓는다. 고장난 레코드판이 같은 구간을 반복하는 듯한 그 악담과 저주를 옮기는 건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차마 옮길 수 없다. 이재명을 악마화하다 자기가 악마가 된 조선일보는 ‘이재명 공포증’에 사로잡혀 이재명 대통령 탄생을 기필코 막으려 한다. 조선일보가 그러는 건, 이재명에게 지은 죄가 많아서다. 죄지는 자는 경찰서 간판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여 멀리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할까.

사실도 그러하다. 윤석열이 파면된 다음 날의 조선일보에는 두 개의 사실이 실렸는데, 첫 번째 사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며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 것이고, 두 번째 사실은 현재도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를 비판했다는 내용이다.

먼저 첫 번째 사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좌절감은 클 거란다. 그들은 민주당의 출탄핵과 방탄, 입법 폭주로 국정이 흔들리는 상황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온 거란다. 그러하니 민주당과 탄핵 찬성 단체들이 그들을 폄하하며 탄핵을 자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잼버리 감사결과 국제행사 교훈으로 삼자

전북자치도가 감사원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수용을 넘어 국제행사 운영 전반의 체계를 점검하고 책임소재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는 단지 과오를 따지는 절차를 넘어 한국의 국제행사 운영 시스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국제행사 추진 역량의 체계화와 도정 전반의 대응체계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패를 감추거나 회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 향후 국제행사에서 반면교사로 삼고 이를 실질적 개선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전북은 그동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주국제영화제,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등 수많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온 경험이 있다. 특히 문화·예술,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 노하우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2년 전 잼버리 운영의 아쉬운 결과가 이 같은 빛나는 성과마저 가리개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국제행사 운영의 책임 구조가 얼마나 복잡하고 모호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유치 지자체인 전북도는 부지 제공과 일부 기반시설 조성이라는 본연의 역할만을 수행했으며 숙영시설 운영, 참가자 관리, 생활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운영은 조직위원회와 여가부 등 주무 부처가 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지나치게 많은 비난을 받아온 측면이 있다는

점은 균형 있게 평가돼야 한다.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이 같은 구조적 책임소재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전북도는 이번 일을 통해 국제행사 추진에 있어 명확한 역할 분담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기관 간 협력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체감했을 것이다. 향후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전북이 더는 권한 밖의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명확한 체계 수립이 절실하다. 이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제행사 운영 시스템을 성숙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과제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위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전북은 이제 더 정교한 준비와 체계적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번 잼버리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선진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도전과 함께한 성공의 경험을 되살리고, 지역의 감정을 살리는 방향으로 국제행사 추진 역량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번 감사는 진실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동시에 그동안 부당하게 떠안았던 오해와 비난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일방적 변명이 아니라, 실제적 진실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결연한 의지다. 전북이 중심이 돼 우리나라 국제행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번 계기가 실질적 제도 개선과 역량 고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열전



선원사 약사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적건조물, 불교, 불전
- 지정일 - 1986년 9월 8일
- 시대 - 통일신라시대
- 소재지 - 남원시 도통동 395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창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인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연주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9-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9-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믿을수있는 뉴-스

전북의 중심에서!

광고문의 282-9601

https://www.jeonbuktimes.co.kr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9603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곳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객실 최신 리뉴얼

세상을 즐겁게, 휴식을 새롭게
자연과 힐링이 함께하는
무주덕유산리조트



※ 본 광고에 사용한 이미지 및 내용, 문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알프스풍 4계절 리조트



알파인 스키의 본고장, 오스트리아 산악
지대의 휴양시설을 그대로 담은 리조트

| 새로워진 객실서비스



쾌적함과 편안함을 더해 새롭게
리노베이션한 고급·실속형 객실 서비스

| 정상까지 가볍게 곤도라



덕유산의 사계를 즐기며 정상까지 쉽게
오를 수 있는 덕유산 명물 관광곤도라

| 국내 최장거리 스키코스



6.1km 국내 최장거리 코스와 국내 최고
경사도 코스 등 6가지 스키 슬로프